

와우 스토리 1부 : 아제로스의 새벽 (태초 ~ 1만 2천 년) 처음, 공허가 피어났다. 그것은 어둠의 공백에서 성장했고, 빛과 어우러져 물리 우주를 탄생시켰다. 우주는 '끝없는 어둠(Great Dark Beyond)'이었다. 그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별과 행성이 탄생했다. 빛과 공허가 뒤섞인 불안정한 에너지는 '뒤틀린 황천(Twisting Nether)'이라는 비현실의 차원도 생성시켰다. 그것은 물리 우주의 경계 바깥에 평행하게 존재했다. 그러나 우주와는 희미하게나마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공허와도 닿아있었다. 뒤틀린 황천은 물리 우주와 차원을 달리했으나 그 불안정한 에너지는 가끔씩 우주의 장막을 찢고 현실로 흘러들어 창조를 왜곡했다. 빛은 우주의 수많은 행성에 생명을 흩뿌렸다. 그중 첫 번째로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의 형태는 원소 정령이었다. 불, 물, 바람, 대지, 정기, 부패. 여섯 가지 원소의 영향을 받는 이 생명체들은 거의 모든 물리 세계에 자생했으며 창조의 초기 시대를 열었다. 나루는 신성한 빛으로 이루어진 자애로운 존재였다. 그들은 신성 마법의 능력을 사용해 희망을 퍼뜨렸고, 어느 곳이건 생명을 발견한다면 보살피 주기로 맹세했다. 티탄은 세계혼이라고도 알려진 행성의 내핵 중심에서 형성되었다. 백금 또는 청동 금속 피부를 가진 그들은 창조의 힘을 지닌 채, 우주의 행성들을 관찰하고 여행했다. 나루는 생명을 찾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티탄의 여정은 아직 세계혼으로써 잠들어 있는 동족을 찾아 깨우기 위함이었다. 공허의 군주들은 그 이름대로 공허에 존재했다. 이들은 충족되지 않는 굶주림에 이끌려 물질 우주의 모든 사물과 에너지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물리 우주에 개입할 수 없었다. 가장 강력한 공허의 군주만이 물질 우주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일정 시간 동안만 가능했다. -147,000년 세계혼(World-soul)으로부터 처음 깨어난 티탄은 아만툴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깨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른 동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아만툴은 초기 세계혼을 찾아 행성을 탐험했고, 마침내 동족을 발견해 깨우는데 성공했다. 깨어난 티탄들은 아만툴의 숭고한 탐색에 헌신적으로 동참했다. 언제부터인가 이 티탄의 무리는 판테온이라 불렸다. 판테온은 동족을 깨우기 위해선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티탄은 본질적으로 질서와 안정으로부터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선 날뛰는 원소 정령을 진정시켰다. 그런 다음 산과 바다를 만들어 세계를 다시 빚어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질서를 세운 세계에 수많은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 판테온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혼을 불러내고 세계가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랐다. 판테온은 또한 그들이 빛은 행성의 표면에 거대한 기계를 파묻었다. 혹시라도 진화의 경로가 무질서로 향했을 때에, 이 장치를 통해서 진화의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생명을 찢어 내고 세계를 정화하기 위함이었다. 아만툴은 이 정화 장치를 다룰 존재로 별무리(constellar)라는 신비의 종족을 불러냈다. 이들 별무리는 만약 불안정한 징후가 발견될 경우 비상 복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티탄이 질서를 세운 행성들을 관찰했다. 한편, 끝없는 어둠 우주 머나먼 영역에서는 티탄이 알지 못하는 사악한 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허의 군주들은 행성을 넘나드는 판테온을 지켜보며 그들의 능력을 시기했고, 급기야 세계를 빚어내는 티탄 중 하나를 타락시켜 자신들의 의지를 따르는 도구로 삼고자 했다. 하지만 강직한 티탄은 그 은밀한 타락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장 취약한 상태의 티탄, 즉 아직 깨어나지 않은 세계혼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로 마음먹었다. 공허의 군주는 세계혼이 어느 행성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힘을 모은 다음 세계혼이 있는 행성에 달기를 바라며 물리 우주 곳곳에 어둠의 생명체를 흩뿌렸다. 이 공허의 피조물들은 끝없는 어둠 우주를 가로질러 맹목적으로 세계혼을 찾아헤맸다. 이 사악한 존재들은 훗날 고대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마주치는 모든 것을 타락시켰다. 판테온은 공허의 군주나 고대신의 존재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

의 관심은 그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 즉 악마에게 쏠렸다. 뒤틀린 황천에서 태어난 그 포악한 생명체들은 끝없는 어둠 우주에서 태어난 생명들과 달리 빛과 공허의 에너지가 서로 뒤섞인 결과로 빚어진 존재들이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강한 악의와 증오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상급 악마 종족인 나스레짐은 공포의 군주들이라고도 불렸다. 그들은 교활하고 조종에 능한 자들로써, 필멸의 문명에 침투해 부족끼리 싸우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즐겼다. 아나이힐란 종족의 또 다른 이름은 지옥의 군주였다. 그들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필멸의 생명들을 학살하고 고통을 선사했다. 테온은 이들 악마가 세계혼을 깨우고자 하는 자신들의 일을 방해할 것을 염려해 가장 강력한 티탄 전사, 살게라스를 급파했다. 부관 역할로 아그라마르도 함께 붙여주었다. 고결한 살게라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업을 주저하지 않고 시행했다. 그의 용기와 힘은 판테온의 구성원 중에서도 독보적이었기에, 악마를 뒤쫓는 험난한 임무에 잘 들어맞았다. 사악한 악마들은 매우 호전적이었지만 체계가 없었고 효율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살게라스는 손쉽게 악마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뒤틀린 황천에서 태어난 악마들은 물리 우주에서 퇴치한다고 해도 영혼만은 황천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살게라스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아그라마르가 악마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이, 살게라스는 시간을 갖고 뒤틀린 황천의 성질을 연구했다. 마침내 마르둠이라는 추방의 차원을 만들어낸 살게라스는 퇴치한 악마들을 그곳에 가두었다. 이 소차원의 감옥에 가두어진 악마들은 영원히 고립되어 더 이상 우주에 위협을 가하지 못 했다. 마르둠은 곧 끔찍한 지옥의 에너지로 넘쳐났지만, 덕분에 티탄의 행성들은 번영할 수 있었다. 어느 시기에 살게라스는 우주의 머나먼 구석으로 이끌려 갔다. 검고 메마른 행성에서 차가운 공허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보는 거대한 존재가 행성의 표면을 타락시키는 광경을 마주했다. 고대신이었다. 고대신은 행성에 스스로를 파묻은 채 공허의 장막을 드리우고 있었다. 살게라스는 그 어둡고 사악한 존재가 행성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잠든 티탄의 영혼, 세계혼을 어둠 속으로 휘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윽고 한 무리의 나스레짐이 고대신의 어두운 힘을 받기 위해 이끌려오자, 살게라스는 그들을 붙잡아 심문했다. 악마들은 곧 공허의 군주와 고대신에 대해 아는 것들을 털어놓았다. 만약 공허의 힘이 발생 초기의 티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한다면 티탄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존재로 깨어날 것이며, 그 뒤틀린 티탄은 공허의 군주의 의지에 따라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힘은 판테온조차 맞서지 못할 것이라 했다. 패배를 모르는 위대한 전사 살게라스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분노와 괴로움에 사로잡힌 살게라스는 비통한 심정으로 즉시 검을 들어 타락한 행성을 두 동강 냈다. 곧 폭발이 이어지며 세계혼도 함께 소멸했다. 어둠에 물든 티탄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살게라스는 즉각 이 일을 판테온과 동족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공허의 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가늠하지 못했고, 오히려 왜 성급히 세계혼을 파괴했느냐며 살게라스를 나무랐다. 살게라스와 다른 티탄 사이에 논쟁은 곧 격화되었다. 살게라스는 공허의 군주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저지할 방법은 모든 창조물을 불태우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 우주에서 오염을 거두고 나면 생명은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판테온 구성원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을 뿐이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모두가 반대했다. 살게라스는 판테온이 영원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공허의 군주가 일으키는 타락을 정화하는 작업은 혼자서 해야 했다. 절망감에 휩싸인 살게라스는 동족들을 등지고 뛰쳐나갔다. 그것이 판테온의 티탄들이 살게라스를 자신의 동료로서 마주한 마지막 순간이었다. -65,000년 긴 시간이 흘러 우주에는 더 이상 세계혼을 품은 행성이 없는 듯했다. 그러던 차

에 끝없는 어둠의 외진 구석에서 어린 행성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행성의 깊은 곳에서는 강력하고 고귀한 티탄의 영혼이 생명을 품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훗날 아제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릴 행성이었다. 아제로스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세계혼보다도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제로스 역시 초기 티탄이 내핵에서 성장하는 동안 행성 표면은 원소 정령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었다. 특히 가장 강력했던 네 정령 군주는 수많은 하급 정령들을 부리며 군림했다. 불의 정령 군주 라그라노스, 바람의 군주 알아키르, 바위 어머니 테라제인, 파도사냥꾼 넵툴론. 이들에게 있어 유일한 욕망은 그저 아제로스에 펼쳐진 끝없는 혼돈의 순환을 지속하는 것뿐이었다. 정령 군주들이 태고의 소란을 즐기는 동안 끝없는 어둠에서 한 무리의 고대 신이 아제로스에 떨어졌다. 그들은 아제로스의 표면에 충돌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자리를 잡았다. 그들에게 있어 잠재력 강한 아제로스는 타락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고대 신들은 마치 거대한 종양처럼 아제로스의 대지에 타락의 기운을 퍼뜨렸다. 고대 신의 촉수는 아제로스의 표면을 뚫고 내핵을 향해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그들의 황폐한 몸에선 사악한 생체 물질이 흘러나왔다. 고대 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생체 물질은 두 가지 독특한 종족을 탄생시켰다. 첫 번째는 교활하고 지능적인 느라키, 즉 '얼굴 없는 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종족이었다. 두 번째는 집요한 곤충 종족 아퀴르였다. 이 두 종족은 고대 신에게 광적인 충성심을 보이며 주인을 섬겼다. 이들은 곧 아제로스 대륙의 중심부에 검은 제국이라는 최초의 문명을 탄생시켰다. 고대신 이사라즈의 영토를 중심으로 건설된 이 문명의 출현은 정령왕들의 적대감을 키웠고, 곧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네 명의 정령왕은 협력을 도모했다. 하지만 이미 세력이 너무나 커져버린 그들을 상대하기엔 정령들의 힘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령왕들은 고대 신에게 감염되어 그들의 수족이 되고 만다. 한편, 티탄 아그라마르는 살게라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홀로 계속해서 황천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고 언젠가 살게라스가 돌아와 다시 함께 할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그라마르는 우주의 외진 구석에서 마침내 아제로스를 발견했다. 아제로스의 심장부에는 분명 동족이 잠들어 있었고, 게다가 이제까지 만난 어느 세계혼보다도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세계혼은 너무도 강력해 활동의 흔적이 행성의 표면까지 전해졌고 아그라마르는 소리만으로도 세계혼의 꿈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아제로스를 살펴본 순간 아그라마르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제로스의 표면이 병든 피부처럼 공허의 에너지에 물들어 있었다. 황폐한 땅에는 고대 신과 검은 제국이 솟아나 있었다. 어린 티탄의 영혼이 아직 타락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아그라마르는 그 영혼이 공허에 굴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라 생각했다. 아그라마르는 판테온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구했다. 그것은 공허의 군주와 그들의 계획에 관한 살게라스의 이야기가 옳았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아그라마르는 티탄들에게 아제로스를 영원히 잃어버리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탄 이오나는 고대 신의 사악함에 놀라는 한편 아제로스의 잠재력에 더욱 주목했다. 그녀는 아제로스가 타락할 경우 살게라스를 능가하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티탄으로 잘 성장해 깨어나준다면 자신들에게 아주 든든한 우군이 되어 공허의 군주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돼줄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판테온은 이오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제로스를 예전 살게라스가 했던 것처럼 파괴하지는 않고, 다 같이 힘을 합쳐 고대 신에게 감염된 행성을 정확하고 질서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티탄들은 우선 거인 종족과 수호자들을 창조해 군대를 조직했다. (※ 수호자 : 거인 종족의 우두머리. 티탄 감시자, 또는 티탄 관리인이라고도 부른다. 로켄, 오딘, 라, 토림, 호디르, 프레이야, 미미론, 티르, 아카에다스 등등이 있다.) 이들 수호자들은 거인들을 이끌고 검은 제국의 최북단 요새부터 강타했다. 고대 신들은 먼저 자신들이 감염시킨 불사의 정령왕들을

내보냈다. 하지만 수호자들은 그들을 소차원을 새로 만들어 그곳에 가두어버렸다. 과거 살게 라스가 마르둠 차원을 만들어 황천의 악마들을 가둔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이어서 수호자들은 검은 제국의 아퀴르 군단에 눈을 돌렸다. 곤충류인 아퀴르의 상당수는 지하에 구축한 거대한 땅굴에 살고 있었다. 수호자들은 흙과 바위를 움직여 아퀴르의 동굴을 무너뜨렸다. 결국 동지에서 내몰린 아퀴르는 소수만이 살아남아 패퇴했다. 수호자들은 마지막으로 검은 제국의 심장부를 둘러싼 느라키들을 조각내며 고대 신이 위치한 핵심부로 진입했다. 판테온은 피조물들이 고대 신들에게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직접 그들을 상대했다. 아만툴은 거대한 팔을 들어 아제로스의 표면에서 고대 신 이사라즈를 뜯어냈다. 이사라즈의 거대한 몸통은 산산조각 났고 마침내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이사라즈의 촉수는 아만툴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미치고 있었다. 때문에 어린 티탄의 생혈인 비전 에너지가 상처에서 솟구쳐 나와 사방에 흘렀다. 아만툴은 당황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고대 신을 처치했다간 아제로스도 무사하지 못 했다.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방법이었다. 판테온은 고민 끝에 사악한 고대 신을 그 자리에 그대로 봉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어려운 일이지만 수호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했다. 그들은 필사의 사투를 벌였고, 마침내 나머지 고대 신인 크툰, 느조스, 요그사론을 모두 아제로스 깊은 곳에 봉인하는데 성공했다. 아제로스에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고대 신이 남긴 상처는 끔찍했다. 아제로스에 새겨진 상처, 그 거대한 틈에선 비전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아제로스 전역으로 퍼져 갔다. 티탄들은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그 에너지가 점차 아제로스를 집어삼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수호자들에게 '창조의 기둥'이라는 유물을 주어 그들이 직접 아제로스를 치유하고 빚어낼 수 있도록 했다. 수호자들은 밤낮으로 매달려 벌어진 틈으로 분출하는 생혈을 막을 마법의 수호물을 만들었다. 결국 맹렬히 솟구치던 에너지는 잦아들었고 균형을 찾았다. 상처가 있던 자리에는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호수만이 남았다. 수호자들은 그것을 영원의 샘이라 불렀다. 영원의 샘은 그 신비로운 힘으로 고통받는 아제로스의 곳곳에 스며들어 생명이 온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번창하도록 도왔다. 수호자들은 아제로스에 더욱 기운을 불어넣고 생명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지의 용광로와 시초의 용광로를 만들었다. 그들은 먼저 아제로스의 북쪽에 '의지의 용광로'를 설치하고 그것을 보호할 요새 울두아르를 건설했다. 또한 울두아르에는 의지의 용광로는 물론 요그사론의 감옥이 있었기에 티탄의 피조물이자 강철 피부를 가진 용맹한 전사 브리쿨로 하여금 요새를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의지의 용광로는 아제로스에서 생명의 정수를 끌어모아 바위와 강철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을 형성했다. 바위 피부를 지닌 아누비사스, 맹수를 닮은 톨비르, 불굴의 모구, 기괴한 트로그가 바로 그들이었다. 수호자들은 아제로스 남단에서 발견한 이사라즈의 심장을 연구하여 공허의 피조물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따라서 심장을 남쪽 영원꽃 골짜기 지하에 이사라즈의 금고를 만들어 가둔 다음 모구들에게 감시하도록 했다. 이어서 그들은 아제로스 정화 기능을 맡을 '시초의 용광로'를 만들고 그것을 보호할 요새 울둠을 건설했다. 울둠을 지킬 역할로는 톨비르를 배치했다. 동쪽의 땅에는 티탄의 금고 울다만에 실패작 피조물인 트로그들을 수용시켰다. 마지막으로 서쪽에 고대 신 크툰을 감시할 요새 안퀴라즈까지 건설해 아누비사스를 배치했다. 수호자들은 다음으로 아제로스의 표면을 재형성하는 일에 착수했다. 의지의 용광로에서 태어난 또 다른 티탄의 피조물 토석인들은 산을 만들거나 땅을 깎는데 특기가 있었다. 수호자 미미론이 설계한 기계 노움들은 기계장치의 제작을 돕거나 보수를 담당했다. 거대한 몸집의 거인들은 아제로스에 강과 물길을 만들고 심해의 바닥을 빚었다. 아제로스가 상처를 치유하고 제 모습을 갖춰가자, 수호자 프레이야는 아제로스에 유기 생명체를 채우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프레이야는 영혼과 자연 마법의 차원 에메랄드의 꿈을 만

들었다. 이 차원은 아제로스의 복제 형상으로 작용하면서 동식물의 진화 경로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많은 영혼과 초자연적인 존재가 에메랄드의 꿈을 채웠고 그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즐거이 뛰놀았다. 이 신비로운 꿈은 현실에 관한 필멸자의 인식을 부정했다. 시간이나 거리와 같은 개념은 없었기에 현실에서의 하루가 에메랄드의 꿈에서는 수십 년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프레이야는 에메랄드의 꿈을 만든 이후에도 아제로스를 떠돌며 영원의 샘에서 나온 에너지가 모이는 곳을 찾았다. 그녀는 그 마력의 장소에 자연의 균락을 조성했고, 그곳에서 위대한 생명체가 자연스레 출현했다. 야생 신이라 불릴 거대한 동물들이었다. 야생 신들의 발자국에서는 무성한 숲과 초원이 자라나곤 했다. 특히 하이잘 산의 무성한 숲은 야생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프레이야는 야생 신들의 사랑스러운 영혼을 에메랄드의 꿈에 결속시켰다. 야생 신들은 그 에테르 영역에 굳게 연결되어 아제로스의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아제로스에는 계속해서 피와 살을 지닌 낯선 생명체들이 자연 발생했다. 원시 용이 그러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그러했다. 어느 황혼이 지던 저녁, 티탄이 버려낸 피조물들은 스스로 빛은 이 세계를 '영원한 별빛의 땅', 즉 칼림도어라 이름 지었다. 판테온은 수호자들의 노력에 만족하여 아제로스를 떠났다. 우주에 아직 세계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그들은 다시금 탐험의 열정에 차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별무리 종족인 관찰자 알갈론을 두어 만약의 경우 행성이 또다시 오염되면 시초의 용광로를 작동시켜 행성을 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르간논의 원반을 두어 언젠가 판테온이 돌아온다면 그동안 아제로스에서 일어난 일의 기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세계혼이 자연적으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제로스에 가장 번성한 생명체는 원시용이었다. 그들은 다채로웠고 강력했다. 아제로스의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점차 다른 생명체 위에 군림했다. 그중 가장 파괴적인 힘과 잔혹함을 보인 원시용은 단연 갈라크론드였다. 아제로스의 하늘을 가른 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원시용은 채울 수 없는 굽주림으로 칼림도어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심지어 다른 원시 용마저 먹어치워 칼림도어의 하늘을 공포로 뒤덮었다. 수호자 티르는 갈라크론드의 위협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칼림도어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위대하고 지적인 다섯 원시용에게서 답을 찾았다. 그들의 이름은 알렉스트라자, 넬타리온, 말리고스, 이세라, 노즈도르무였다. 이 다섯 원시용은 혈통도 달랐고 각자 고유한 능력도 달랐다. 하지만 티르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티르의 인도에 따라 다섯 용은 칼림도어의 하늘에서 갈라크론드와 섞이고 부딪혔다. 그의 썩은 내 나는 이빨은 날카롭고 울퉁불퉁한 가죽은 단단했다. 하지만 다섯 용의 일사불란한 협력은 마침내 이 거대한 공동의 적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갈라크론드의 시체는 얼어붙은 툰드라에 추락했고, 이 협력의 쾌거는 칼림도어에 교훈이 되었다. 알렉스트라자와 다른 원시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결하고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티르는 다른 수호자들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다섯 원시 용이 앞으로도 아제로스의 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력을 부여해달라고 설득했다. 그의 노력으로 모여든 수호자들은 다섯 용에게 판테온의 축복을 내렸다. 생명을 보살피는 수호자 프레이야는 알렉스트라자에게 티탄 이오나의 권능을 부여했다. 이후부터 알렉스트라자는 생명이 넘치는 아제로스의 청지기가 되었다. 또한 가장 큰 용기와 연민을 인정받아 다른 동족들을 다스리는 용의 여왕이 되었다. 이세라는 아제로스와 에메랄드의 꿈에서 자라나는 야생 동식물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에테르 영역인 에메랄드의 꿈에 결속되어 끝없는 잠에 빠져들었고 이후 꿈의 여왕으로 알려졌다. 수호자 라는 노즈도르무에게 티탄 아만톨의 수많은 능력 중 시간을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했다. 수호자 로켄은 말리고스에게 티탄 노르간논의 비전 마력을 부여해 마법의 지배자로 만들

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수호자 아카에다스는 넬타리온에게 티탄 카즈고로스의 힘을 부여해 대지의 수호자로 탄생시켰다. 다섯 용은 이른바 용의 위상으로써 아제로스의 수호를 맹세했다. -25,000년 살게라스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공허의 군주가 이미 다른 세계혼들을 대부분 타락시켰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휘감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공허의 군주가 창조물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려면 생명 자체가 사라져야 했다. 살게라스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선 대규모 군대가 필요했다. 그가 알기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였다. 추방의 차원 마르둠. 살게라스는 마르둠의 차원을 찢어 지옥의 문을 열었다. 그와 함께 응축되어있었던 황천 지옥의 에너지가 폭발했다. 그 끔찍함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위력적이었다. 파괴적인 에너지가 살게라스의 핏줄을 타고 흘러들어 그의 영혼을 불태웠다. 두 눈은 불꽃의 덩어리가 되어 타올랐으며, 한때 고귀했던 육체는 갈라지고 불타올랐다. 더 이상 그에게서 고결했던 티탄 전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살게라스는 끝없는 어둠 우주와 뒤틀린 황천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무시무시한 천체의 주둥이가 에메랄드 불꽃의 폭풍을 일으키며 현실의 결을 찢고 들어왔다. 그 균열에서, 온갖 악마들이 포효하며 쏟아져 들어왔다. 살게라스는 그들을 규합해 자신의 군대로 재정비했다. 악마들은 앞으로 그가 보장할 파괴의 앞날에 기뻐했다. 살게라스는 이들을 통해 공허의 군주의 계획을 반드시 저지하리라 마음먹었다. 모든 것을 불태울 성스러운 투쟁. 불타는 성전이 선포되었다. 불타는 군단은 첫 번째 행성을 덮쳤다. 아주 오래전에 판테온이 정돈한 적이 있는 행성이었다. 살게라스의 군단은 그곳에서 필멸의 문명들을 불태웠고 의식이 있는 수십 종의 생명체를 말살했다. 행성을 지켜야 했던 별무리도 어찌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별무리의 최후를 처음 인지한 이는 티탄 아그라마르였다. 아그라마르는 불타는 군단이 또 다른 행성을 불태우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을 이끄는 자가 누구인지 곧 알게 되었다. 자신의 스승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 살게라스였다. 아그라마르는 눈을 의심했다. 살게라스는 그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파괴를 계속했다. 그저 자신을 막아서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불타는 군단의 불길에 사라질 것이라 경고할 뿐이었다. 아그라마르는 그에게 맞서보았지만 역부족이었고, 일단 돌아가 판테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판테온의 모든 티탄은 충격받았다. 가장 위대하고 고결했던 티탄의 전사가 저토록 끔찍한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 아만툰은 살게라스에게 아제로스의 존재를 알려주며 그 세계혼이 언젠가 깨어나면 공허의 군주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설득해보았다. 하지만 살게라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자신에게 일말의 고결함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해 검을 내려놓고 다가왔던 아그라마르의 몸을 두 동강 내기까지 했다. 분노한 판테온은 살게라스와 불타는 군단에게 총공격을 감행했다. 그 격렬한 에너지에 별들은 죽어 갔고 우주에는 거대하게 늘어진 상처가 새겨졌다. 하지만 지옥에서 힘을 끌어올린 살게라스는 거대한 지옥 폭풍으로 판테온의 육체를 집어삼켰다. 수십만 년간 전투만을 해온 살게라스와 그의 군단에게 티탄들은 하나씩 쓰러져 갔다. 티탄 노르간논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판테온 티탄들의 영혼에 보호의 장막을 덧씌웠다. 그리고 끝없는 우주의 어둠 속으로 날려 보냈다. 직후 살게라스의 지옥 폭풍은 그들의 남은 육체를 소멸시켰다. 살게라스는 승리를 선언했다. 이제 판테온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제로스라 불리는 강력한 세계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살게라스는 아제로스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마음먹었다. 불타는 군단은 비록 승리했지만 전투의 손실이 심각했다. 이번 전투로 군단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그들에게 전략적인 지성을 가진 지휘관이 없었다. 살게라스가 알기로, 그가 그동안 우주에서 발견한 종족 중에서 가장 지성이 뛰어난 종족은 아르거스 행성에 거주하는 에레달 종족이었다. 에레달 종족은 끊임없이 지식을 갈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 문명과 철학을 선물한 것은 나루 종족이었다. 에레달 종족

은 나루가 선물한 '아타말 수정'을 통해 수도 없이 명상에 빠져들었으며, 이를 통해 지식과 지혜, 우주의 위대한 질문을 고민하는 철학을 갖췄다. 에레달은 세 명의 지도자가 이끌었다. 이들은 무력이나 공포 없이 효과적인 삼두 정치를 해왔다. 킬제덴은 세 지도자 중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명하고 빈틈없는 정책으로 에레달을 번영시켰다. 아키몬드는 강한 카리스마와 담대한 리더십으로 동족들을 규합했다. 벨렌은 종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흔들림 없는 평화적 지혜를 보였다. 살게라스는 이들의 능력이 꼭 필요했다. 살게라스가 빛을 내뿜는 우아한 존재로 위장하고 교감을 시도하자, 그들은 반응을 보였다. 살게라스는 에레달이 원하는 지식과 지혜를 약속했다. 우주의 비밀, 창조의 근본적 결함, 그 최종적인 답을 알려 주겠노라 약속했다. 그리고 에레달이 다스릴 수많은 행성을 보여주었다. 에레달이 지적 사고로 가득한 평화적 안식처로 변화시킬 원시 행성들이었다. 그 제안은 킬제덴과 아키몬드의 마음을 움직였다. 실로 탐나는 제안이었다. 살게라스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대업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 하지만 벨렌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딘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신성한 나루가 선물한 아타말 수정을 통해 명상에 들었다. 그러자 미래의 계시가 보였고, 그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평화적이고 지적이었던 에레달의 동족들이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벨렌은 자신이 보았던 미래를 형제들에게 전하며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달콤한 약속에 빠져든 킬제덴과 아키몬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절망한 벨렌이 낙담하고 있던 순간, 아타말 수정을 통해 그에게 계시를 전했던 나루 족 크우레가 다가왔다.

크우레는 벨렌에게 가까운 동족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고 전했다. 벨렌은 그의 말대로 신뢰할 수 있는 에레달 사람들을 모아 탈출을 시도했다. 살게라스가 직접 아르거스 행성에 도착한 그때, 벨렌과 그의 추종자들은 '제네달'이라 불리는 거대한 나루 차원 성채에 올라 고향 행성을 떠났다. 그날 이후 이 벨렌의 무리는 '추방당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드레나이로 불렸다. 얼마 후 아르거스에 강림한 살게라스는 나머지 에레달을 완벽히 타락시켰다. 그의 부정적인 의지는 아르거스인들의 마음에 깃들어 이성적인 사고를 무너뜨렸고, 또한 지옥의 에너지를 주입해 흉측한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살게라스는 킬제덴의 타고난 치밀함과 지성을 불타는 군단에 맞게 개조했다. 이후 '기만자'라 알려진 킬제덴은 자신의 기지를 활용해 물리 우주에 있는 필멸의 문명들을 불타는 군단의 앞잡이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살게라스는 또한 주위 동료의 의욕을 고취하는 아키몬드의 재능이 불타는 군단을 강화하는 귀중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키몬드는 그 이후 '파멸자'라고 알려졌고 그의 강력한 의지를 사용해 악마의 군대를 극단적인 폭력과 야만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었다. 에레달의 지휘 하에 불타는 군단의 병력은 뒤틀린 황천과 끝없는 어둠의 행성에서 새로운 악마 종족을 규합하며 점점 증가했다. 살게라스는 급증하는 병력에 기뻐하며 악마들을 대우주로 보냈고 창조를 끝장낼 불타는 성전을 재개했다. 불타는 군단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수많은 행성과 문명을 불태우며 존재의 흔적을 지워 나갔다. 육신을 떠난 판테온 티탄들의 영혼은 아제로스의 수호자들을 향해 날아갔다. 판테온은 아제로스에서 깃들 육체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만약 그릇이 될 생명체를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약해진 영혼이 곧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두려운 최후를 맞이해야 했다. 티탄의 영혼들은 힘이 크게 빠진 채 아제로스에 도착해 우선 자신의 손으로 창조했던 수호자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수호자들은 마음속에서 티탄의 힘이 이는 것을 느끼고 바로 압도되었다. 그러나 그 힘은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희미해졌다. 수호자들은 여전히 원래 성격을 유지했으며 그 이상한 현상에 당혹스러워했다. 그들은 창조자의 마지막 흔적이 자신들의 몸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답을 주지 않는 판테온의 긴 침묵에 혼란과 불안을 느꼈을 뿐이었다. 울두아르에

간혀 있던 고대 신 요그사론은 수호자들의 그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나약함을 보이자, 우선 가까이서 울두아르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수호자 로켄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그의 타락을 유도했다. 로켄의 타락은 그의 은밀한 사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 로켄의 형이자 수호자 토림은 브리쿨 여성 시프를 아내로 맞이했었다. 그러나 로켄은 비밀스럽게 시프를 만나며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었고, 이 감정에 들러붙은 요그사론의 사악함은 급기야 로켄이 시프에게 집착한 나머지 그녀를 살해하게 만들었다. 요그사론은 시프의 환영으로 로켄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로켄의 이성을 점점 마비시켜 아무것도 모르는 토림을 울두아르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요그사론은 울두아르 '의지의 용광로'에서 만들어지는 티탄의 피조물들에게 육체의 저주를 은밀히 퍼뜨렸다. 이 기이한 병은 감염자를 피와 살로 이루어진 필멸자로 바꾸어버리는 무서운 저주였다. 로켄은 그제서야 자신이 요그사론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을 수습하기보다는 점점 자신의 죄악을 숨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심지어 그것이 요그사론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었다. 로켄은 울두아르에 봉인된 요그사론의 힘을 쓸 수 있다면 남은 수호자들을 물리치고 모든 죄악의 증거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로켄은 먼저 수호자 오딘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그동안 오딘은 자신만의 영역과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의 수양딸 헬리아의 도움을 받아 울두아르의 한 구역을 떼어 공중으로 띄웠고, 그곳을 용맹의 전당이라 불렀다. 그리고 브리쿨들에게 전투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용맹을 증명한 자는 용맹의 전당에서 '발라자르'라는 위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선포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브리쿨의 영혼을 전당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맡을 자들이 필요했다. 오딘은 헬리아를 강제로 '발키르'라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그 역할을 맡겼다. 헬리아는 자신을 원치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오딘을 증오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 로켄은 이 증오를 품은 헬리아에게 접근했다. 오딘이 건 복종의 사슬을 끊어주는 대가로 용맹의 전당을 봉인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다. 약속대로 자유의지를 되찾은 그녀는 오딘과 발라자르들을 전당과 함께 봉인한 후 그 자신은 헬하임이라는 안식처를 만들어 은거했다. 이후 죽은 브리쿨들의 영혼은 헬하임의 저주를 받아 '크발디르'가 되었다. 토림은 떠나고 오딘은 봉인되었다. 로켄의 다음 목표는 수호자 미미론이었다. 그동안 수상한 징후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었던 미미론은 로켄에 의해 불의의 사고로 가장되어 처리당했다. 미미론의 충성스러운 기계 노움들이 미미론의 영혼을 거대한 기계 몸에 서둘러 주입했지만 영혼에도 상처를 입은 미미론은 스스로를 울두아르의 거대한 작업장에 가둔 채 태엽장치 발명 따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점차 요그사론의 힘을 더 많이 받아들이 세를 불린 로켄은 이어서 수호자 프레이야와 호디르의 군대를 상대로도 승리했다. 두 수호자는 울두아르 내부에 감금되었다. 남은 수호자 중 세 명, 티르와 아카에다스, 아이로나야는 근처 폭풍우 봉우리로 몸을 피했다. 울두아르를 완전히 장악한 로켄은 의지의 용광로를 망가뜨리고 성채를 봉인했다. 그리고 저 멀리 남쪽 끝에 있는 대수호자 라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라는 그동안 판테온이 죽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좌절한 그는 자신의 몸에 남아 있는 티탄 아만툴의 힘을 추출해 영원꽃 골짜기 지역 산속에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었다. 그는 위대한 창조자가 남긴 작은 흔적이 그곳에서 보존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북쪽에서 일어난 동료들의 사건에 관심을 끊은 채 조용히 은거했다. 수호자 티르는 절치부심했다. 그는 과거 갈라크론드를 쓰러뜨렸던 다섯 용의 위상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동안 로켄은 자신이 창조한 화염거인과 용암 골렘, 호전적인 브리쿨 부족 '윈터스코른', 그리고 마법 올가미를 통해 원시 용군단까지 노예로 삼아 세력을 불리고 있었다. 용들까지 건드린 것에 분노한 용의 위상들은 그들에게 주저 없이 마력을 쏟아부었고, 마침 점차 육체의 저주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브리



쿨들은 위상들의 위압적인 공격에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윈터스코른 전쟁에서 승리한 티르는 로켄이 있는 울두아르 성채에 눈을 돌렸다. 그가 다음으로 생각한 든든한 우군은 관찰자 알갈론이었다. 그에게 로켄의 악행을 알리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로켄을 없앨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것을 위해선 먼저 아제로스의 역사가 기록되는 '노르간논의 원반'을 얻어야 했다. 울두아르 성채에 몰래 잠입한 티르는 계획대로 원반을 훔쳐 달아났다. 로켄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티르 무리가 알갈론에게 원반을 보여준다면 자신은 끝장이었다. 절박한 심정이 된 로켄은 기어코 고대 신의 수하였던 '크트락시(느라키의 장군들)'에게까지 손을 빌렸다. 크트락시 자카즈와 키텍스는 검은 제국에서 활약했던 잔혹한 괴물들이었다. 두 괴물은 로켄의 마음속에서 요그사론의 흔적을 읽고 기꺼이 그의 명령에 따라 티르 무리를 추적했다. 티르 일행은 동쪽의 어느 숲에 도착했다. 크트락시가 그들을 추적해오자, 티르는 시간을 벌기 위해 홀로 그들과 싸웠다. 비전 에너지와 암흑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숲을 갈랐다. 결국 티르는 남은 모든 힘을 방출해 생명력을 대가로 눈부신 비전 에너지의 폭발을 일으켰다. 그 충격은 아제로스의 지축을 흔들 정도였다. 티르는 죽었다. 자카즈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사망했고, 키텍스만이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남아 저 멀리 서쪽으로 도망쳤다. 수호자 아카에다스와 아이로나야는 구덩이 주위의 숲을 티르가 쓰러졌다는 뜻을 담아 '티르의 몰락지'라고 부르며 그의 명예를 기렸고, 그 이름은 브리쿨의 언어로 티리스팔이 되었다. 티르와 함께 망명하던 브리쿨들은 티리스팔에 남았다. 수호자 아카에다스와 아이로나야는 토석인과 기계 노움들을 데리고 동쪽 끝 울다만으로 향하여 그곳에 노르간논의 원반을 숨겼다. 하지만 이들 티탄의 피조물들은 점차 육체의 저주 징후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급기야 토석인들은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후일을 기약하며 울다만에서 스스로 동면에 들어갔다. 로켄은 노심초사했다. 비록 티르는 죽었지만, 노르간논의 원반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봉인된 울다만을 쳐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로켄은 가짜 원반을 직접 만들어 울두아르에 가져다 놓기로 했다. 그리고 알갈론을 직접 불러낼 수 있는 교신 장치를 모두 파괴했다. 이제 알갈론을 불러내는 방법은 울두아르의 제1관리자인 자신이 죽는 것뿐이었다. 혹시나 아카에다스와 아이로나야가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면, 알갈론은 로켄이 만들어놓은 가짜 원반(로켄의 과오를 지우고 역사를 왜곡시킨 원반)을 보고 아제로스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것이다. 그 정도면 로켄에게도 만족할 만한 복수였다. 브리쿨 부족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갈라져 왔다. 그들 중 일부인 윈터스코른 부족은 용의 위상에 의해 대다수 멸족되었고, 일부 브리쿨의 영혼은 저 구름 위 용맹의 전당에 봉인되었다. 또 일부는 티리스팔 숲에 남았다. 브리쿨의 왕 이미론이 통치하는 용약탈 부족은 아직 아제로스 북부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원시 용을 사냥의 동반자로 삼아 사나운 곰 종족들을 몰아내고 북부에 확실히 정착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육체의 저주 탓에 용약탈 부족의 여인들은 작고 기형적인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다. 이미론 왕은 급기야 그 아이들을 죽여서 부족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한 잔혹한 명령을 따르지 못한 몇몇 부족원들은 갓난 아이들을 티리스팔에 있는 브리쿨들에게 몰래 맡기고 떠났다. 수 세대 동안 육체의 저주에 걸린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계속 퇴화를 거듭해 인간이라 불리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다. 기계 노움은 노움으로, 토석인은 드워프로. 그 외에도 톨비르, 모구, 거인 등 다른 티탄의 피조물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다. 아주 극소수만이 그 고통을 물리칠 수 있었다. 요그사론은 흡족한 마음으로 탈출에 집중했다. 이제 고작 수천 년만 기다리면 되었다. 한편, 초목이 우거진 칼림도어의 중심부. 비전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영원의 샘 근처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트롤이라 불렀다. -16,000년 수많은 세대가 지나고 생명이 만개한 칼림도어에 가장 먼저 활발한 활동을 보인 건 트롤들이었다. 아제로스의 숲과 밀림에서 번

성한 그들은 놀라운 신체 회복 능력과 민첩성을 자랑했다. 또한 이들은 야생 신들을 '로아'라 부르며 숭배했다. 그들 중 가장 먼저 집단성을 보인 건 가장 호전적이고 강력한 잔달라 부족이었다. 이들은 영원의 샘 남쪽 산맥 고원에 사원을 짓고 그곳을 줄다자르라 이름 지었다. 최초의 트롤, 잔달라 부족 잔달라 부족의 결집 이후에도 트롤은 구루바시 부족, 아마니 부족, 드라카리 부족 등 여러 부족이 따로 두각을 보이며 칼림도어의 무성한 숲 지대를 장악했다. 어느 날 일군의 트롤 무리가 로아에 의해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서 돌무덤 하나를 파헤쳤다. 그것은 과거 수호자 티르와 싸우고 도망쳤던 크트락시 괴물 키틱스가 잠들어있던 곳이었다. 깨어난 키틱스는 검은 제국의 몰락 이후 지하 땅굴에 들어가 숨어있던 아퀴르 종족을 불러냈다. 키틱스는 경멸스러운 트롤 문명을 쓸어버리고 위대한 고대 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아제로스의 패권을 되찾고자 했다. 아퀴르 종족 중 일부는 고대 신 요그사론이 봉인되어있는 대륙 북쪽에 나타나 지하 왕국 아졸네롭을 건설했다. 그들은 요그사론의 영향을 받아 거미족 네루비안으로 변형되었다. 또 한 일부는 대륙 남서부에 있는 고대 신 크톤의 영향을 받아 귀라지라 불리는 종으로 진화되었다. 귀라지들은 아누비사스들을 타락시키고 크톤의 봉인처 안퀴라즈에 동지를 틀었다. 대륙 남쪽으로 간 아퀴르들도 있었다. 이들은 고대 신 이사라즈의 정수를 받아 아들이 사마귀라는 종으로 변형되었다. 사마귀들은 영원꽃 골짜기 근처에 거대한 군락 만티베스를 세우고 이사라즈의 금고를 감시하는 모구 종족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벌였다. 트롤들은 점차 세를 불리는 그들을 가만두고 보지 않았다. 잔달라 부족은 트롤 연합 '줄 제국'을 선포하고 야생 신 로아들과 함께 선봉에 서서 키틱스를 비롯한 적의 핵심 세력을 격파했다. 아마니 부족은 북동쪽으로 도망친 키틱스와 아퀴르 잔당들을 추적해 완전히 끝장냈다. 그리고 다시는 땅굴에서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영토 위에 거대한 줄아만 제국을 세웠다. 이후 이들은 환경에 적응하여 숲 트롤이라 불렸다. 구루바시 부족은 남서쪽 안퀴라즈에 있는 귀라지들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들은 귀라지와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흩어져 줄파락과 줄구릅이라는 터전을 세웠다. 이들은 훗날 각각 정글 트롤과 모래 트롤이라 불렸다. 드라카리 부족은 대륙 북부의 네루비안들을 쫓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줄드락이라는 군락을 세워 네루비안들을 견제했다. 드라카리 부족은 얼음 트롤로 변화되었다. 세력은 소소하지만 어둠이빨 부족이라는 트롤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른 트롤 분파와 달리 도시를 세우지는 않고 하이잘 산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아 달빛을 좋아하는 야행성 어둠 트롤로 진화되었다. 아퀴르 세력이 분열되고 그 위에 트롤 문명이 자리 잡자 전쟁은 소강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칼림도어 남쪽에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다. -15,000년 ~ -12,000년 그동안 모구가 거주하는 영원꽃 골짜기에선 새로운 종족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짓궂은 원숭이 종족 호젠, 물고기를 닮은 종족 진위, 유목 생활을 해온 야생 소 종족 야운골, 작은 몸집의 그루멀, 야만적인 파충류족 사우록, 그리고 무엇보다 두각을 보인 건 뛰어난 지성과 지혜를 갖춘 판다렌 종족이었다. 영원꽃 골짜기의 생명들을 인도한 건 네 명의 야생 신이었다. 옥룡 위론, 백호 쉬엔, 주학 츠지, 흑우 니우짜오. 판다렌들은 이들 반신들을 자애로운 신으로 여기며 '위대한 천신회'라 칭했다. 이들이 번성하는 가운데, 모구 종족은 점차 가속화되는 육체의 저주와 사마귀 종족의 습격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마귀 종족은 알을 낳고 침공하는 식으로 100년 주기마다 한 번씩 모구들을 힘들게 했다. 모구 족의 젊은 전사 레이 셴은 대륙을 떠돌며 배신과 분열로 몰락해가는 모구들에 대해 깊게 사색했다. 답을 갈구하던 그는 이윽고 과거 모구들을 영원꽃 골짜기에 정착시켰던 대수호자 라덴('라'를 모구들은 라덴이라 부른다.)을 찾아갔다. 티탄의 죽음을 느낀 이후 골짜기 지하 석굴에 은거하고 있었던 라덴은 레이 셴을 아만툰의 힘을 보관한 장소로 데려가 '창조주의 죽음'이라는 진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레이 셴은 라덴과 달리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라덴이 어떤 위대한 목표를 갖고 모구들을 시험에 들게 한 게 아니라 그저 무기력한 좌절에 빠져 은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화나게 한 것이다. 레이 선은 돌연 라덴을 공격해 무력화한 다음 천둥산에 가두었다. 레이 선은 라덴의 힘, 그리고 위대한 아만툼의 힘까지 차지했다. 그의 영혼에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밀려들었다. 그는 즉시 모구 부족으로 돌아와 자신을 '천둥왕'이라 칭하고 갈라져 있던 모구 종족을 하나로 평정했다. 레이 선은 일부 모구들의 육체의 저주를 되돌리기까지 했다. 또한 거대한 성벽 '용의 척추'를 쌓아 지긋지긋한 사마귀 종족의 위협으로부터도 어느정도 해방시켜주었다. 모구들은 처음엔 그를 두려워했으나 곧 환호했고, 레이 선의 통치 아래 번영을 갈구했다. 그것은 모구에게 새롭고 영광스러운 제국의 탄생을 의미했다. 하지만 다른 종족에게는 폭정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레이 선은 영원꽃 골짜기 주위에서 노예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 진위 종족은 그에 맞서 용감히 싸웠으나 결국 무너졌다. 호젠 종족은 스스로 모구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판다렌 종족은 야생 신 쉬엔의 힘을 빌려 맞서보았으나 티탄의 힘을 흠친 레이 선을 당할 수는 없었다. 결국 천둥왕의 이름 아래 영원꽃 골짜기의 모두가 언어를 비롯한 문명을 철저히 파괴당하고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모구 제국은 곧 다른 문명의 주의를 끌었다. 특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잔달라 트롤들은 모구들에게 동맹을 제안하며 아제로스 정복자로서의 연대를 주장했다. 그들은 모구에게 아제로스 전반의 환경적인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야욕에 차있던 천둥왕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연합은 먼저 영원꽃 골짜기 서쪽에 위치한 울둠에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울둠에 있는 시초의 용광로와 톨비르들을 수중에 넣는다면 아주 강력한 전력이 되리라 판단했다. 잔달라 트롤과 모구의 야욕에 찬 동맹 하지만 톨비르들은 호락호락 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천둥왕이 대수호자 라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비록 그들은 전력 상으로 모구와 잔달라 연합을 상대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엔 시초의 용광로가 있었다. 톨비르들은 용광로 출력을 조정하여 아제로스 전체가 아닌 주변 지역에만 영향이 가도록 수정했다. 그리고 천둥왕 연합이 가까이 왔을 때, 용광로를 가동시켰다. 그날, 울둠 주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즉사했다. 울둠 주변 지역은 갈라지고 찌그러져 메마른 사막만이 남았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동식물이 뛰놀았던 그 광대한 밀림은 더 이상 없었다. 울둠 내부에 머물렀던 톨비르는 살아남았다. 일군의 모구 무리는 천둥왕의 시체를 모구 제국으로 가져와 무덤에 안치했다. 이 일로 모구와 잔달라 두 제국은 모두 한동안 회복하기 힘든 커다란 치명타를 입었다. 천둥왕의 죽음으로 결국이 약해진 모구 제국은 그럼에도 타 종족의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만에 하나 일어날 반란을 방지하고자 판다렌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계속 노예로 부렸다. 어느 날부터인가 위대한 판다렌 강은 무기 대신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그것을 춤을 추는 것이라 위장했다. 이 기이한 전투 방법은 모구 제국의 억압받는 노예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 나갔다. 수많은 노예들이 강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헌신적으로 새로운 무술을 익혔다. 모구들이 판다렌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이미 혁명은 시작되었다. 판다렌들은 천신회를 비롯해 진위, 호젠, 그루멜, 야운골 등등 함께 반란을 일으킬 세력을 규합했고, 노예들에게 의지하느라 많이 약해졌던 모구들은 결국 그들의 혁명을 저지하지 못 했다. 그렇게 모구 제국은 몰락했다. 이어서 잔달라 트롤까지 침공해 왔지만 지앙이라는 판다렌이 운룡을 길들여 싸우는 방법까지 동족들에게 알려주면서 전쟁은 혁명군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판다렌들은 모구 종족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위대한 강의 가르침대로 평화를 택했다. 영원꽃 골짜기 일대에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열렸고, 판다렌은 그 지역을 고향으로 여기는 다른 종족들과 함께 번성했다. 이른바 판다리아 제국은 그렇게 한동안 평화로웠다. 한편, 하이잘 산 근처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어둠 트롤들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칼림도어 대륙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혁의 시발점이었다.